

# 국어과 교육에서 민간속신어 활용 방안 모색

정일형\*

〈 차례 〉

- I. 서론
  - 1. 연구 목적
  - 2. 연구성과 검토
- II. 민간속신어의 문학적 성격
- III. 국어과 교육에서 민간속신어의 활용 가치
  - 1. 국어과 교육목표와 민간속신어
  - 2. 민간속신어 활용의 국어학습 효과
- IV. 결론

## I. 서론

### 1. 연구목적

어느 민족보다도 교육열이 높았던 우리 선조들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공공 교육기관과 병행하여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만든 교육담을 생활교육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민간에서 자생된 교육담에는 구비문학의 형식으로 나타나며 구체적으로 설화나 민요 판소리, 민속극과 구비단문 형식인 속담과 수수께끼 그리고 민간속신어 등을 들 수 있다.

본고는 구비문학 중 많은 자료가 수집 정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학

\* 동화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적 재창조의 모색에 등한하였던 구비단문형식의 교육담(教育談)의 하나인 민간속신어<sup>1)</sup>를 국어교육의 제재로 포함시켜야 하는 타당성을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다음 세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첫째는, 민간속신어가 고도의 상징성과 함축성이 있는 짧은 문학형태로 내적 개방구조임을 밝힐 것이다.

둘째는, 민간속신어가 국어과 교육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데 적합한 우리 민족의 언어문화유산으로, 현대 감각에 맞게 재창조할 수 있는 적합한 국어과 자료임을 밝힐 것이다.

셋째는, 국어과 교육에서 민간속신어 제재의 활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국어학습의 효과를 점검할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규명을 통해 민간속신어는 우리 조상들의 교육담의 표현방식으로 국어과 교육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용한 민간속신어는 최래옥 교수가 편찬한 『한국 민간속신어 사전』에서 활용하였음을 미리 밝힌다.

## 2. 연구성과 검토

초·중·고교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구비문학중 ‘단문형식의 교육담’을 다룬 것은 교수요목기(해답이후부터 1954년 문교부령 제35호로 공포된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이 나타나기까지의 시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나타나지만 대개는 속담과 격언에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다. 본고에서 다룬 구비단문형식의 문학인 민간속신어는 독자적인 영역으로 다룬적은 없었다. 다만 7차 교육과정에서 국민 공통과정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

1) 최래옥(1983)은 ‘민간속신어’란 학술적 용어를 만들고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민간속신어는 금기어와 길조어, Jink, Sign, Taboo 등으로 표현이 될 만한 것으로 민간에서 신앙성격을 가진 짧은 문장 형태이다.”  
본고에서는 최래옥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고 용어 또한 민간속신어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교 1학년에 해당하는 제 10학년 국어(상) 교과서 7단원인 [생각하는 힘] (1) 윤홍길의 <장마>에서 민간속신어를 소재로 우리 민족 문화의 상징성의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을 뿐이다. 또한 11종의 고등학교 국어생활 교과서에서도 대한교과서(주)에서 발행한 것과 블랙박스(주), 한국교육미디어(주)의 3종에서 금기어가 우리 조상들의 전통언어문화에 속한다는 것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간략한 소개에서 그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민간속신어가 민족의 원초적인 세계관과 인식론이 반영되어 있고 자연과 인간 및 사회에 대한 해석 행위가 언어로 표현되었지만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언어로 표현된 것에 주목하여 언어학적 또는 문학적인 접근의 시도는 거의 전무하고 민속학, 향토학, 언어학, 종교학, 심리학, 역사학, 인류학, 향토학 등의 분야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국어과 교육에서 제재부문에 이론적인 체계를 세워주는 국문학계에서도 그동안 민간속신어를 언어라는 측면보다는 속신 자체에 중점을 두어 민속학 차원에서 다루었다.<sup>2)</sup> 민간속신어를 문학의 차원에서 접근하지 못한 것은 구비문학개론서를 통해 우리나라 구비 문학의 틀을 정립한 장덕순 교수(1988: 9)의 구비문학의 범주설정에서 민간속신어를 제외시켰기 때문이다.<sup>3)</sup>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덕순 교수는 구비문학의 범주를 설정함에 있어, 구비문학은 '말로 된 문학'이기 때문에 문학이 아닌 말은 제외되고, 말로 되지 않은 문학도 제외된다고 전제하고 구체적인 범위로 설화(神話, 傳說, 民譚), 민요(童謠, 男謠, 婦謠), 무가, 판소리, 민속극, 속담, 수수께끼까지로 한정했다. 또한 조동일(1980) 역시 민간속신어가 구비 전승되는

2) "속신은 자연현상, 자연사물 또는 인간 및 사회의 어떤 징표를 기호로 삼아 그것의 의 미화하는 작용에서 비롯된다. 그런 뜻에서 자연과 인간 및 사회에 대한, 말하자면 세계에 대한 해석행위가 다름 아닌 속신이다. 속신은 민속적인 해석학이다." (김열규, 1994: 508)

"H.J Rose 와 Puckett는 모두 속신을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인 진리의 측면에서 타당성의 기준으로 속신을 정의했다. 그들은 속신을 '한 세대 내에서 언제나 좀 더 발전된 습속의 인가를 받지 못한 신념'으로 파악한다." (Alan Dundes, 1975: 89)

3) 구비문학의 범주를 설정함에 있어, 구비문학은 '말로 된 문학'이기 때문에 문학이 아닌 말은 제외되고, 말로 되지 않은 문학도 제외된다고 전제하고 구체적인 범위로 설화(神話, 傳說, 民譚), 민요(童謠, 男謠, 婦謠), 무가, 판소리, 민속극, 속담, 수수께끼까지로 한정했다.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는 있기는 하지만 말을 하거나 듣는 것 자체가 재미 있는 놀이가 될 수 없기에 문학의 범주에 들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정일형(1999: 129-193)은 이러한 규정이 잘못되었음을 이미 밝힌 바 있다.<sup>4)</sup>

그동안 민간속신어에 대한 연구는 자료집성의 수준에서 그쳤으며,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20~30년대(이은상, 1927a, 1977b, 1929), 60~70년대(김성배, 1962-3, 1973, 1975; 문효근, 1962-3; 심재기, 1967, 1970, 1978; 김영돈 외, 1972; 김종택, 1973; 김형주, 1979; 최근무, 1979) 와 80년대(김성배, 1980; 최래옥, 1983; 김종택, 1983; 김열규, 1983; 장장식, 1985; 김태곤, 1988; 최길성, 1989)와 90년대(김선풍, 1990; 김일환, 1992)에 이루어졌으며 거의 성격에 대한 규명과 민속학적인 접근이 대부분이었다. 앞에서 밝혔듯이 민간속신어를 구비문학의 범주에 넣지 않은 결과이다.

본 장에서는 국문학계에서 민간속신어를 민속학 차원에서 다루었을 지라도 현재 채록된 2만 여 편의 자료가 수집된 것과 다각도에서의 의미를 규명한 작업들 또한 구비문학의 초석이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선행 연구로 간주하여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민간속신어의 문학적인 접근은 이미 1933년에 간행된 『조선총독부 조사 자료 제37집』 「朝鮮の占卜と豫言」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자료집은 민간속신어의 모습을 점복과 예언의 항목으로 설정하여 민간 신앙의 차원에서 자료를 채록한 것에 불과하지만, 자료 수집의 기회를 마련한 초석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 후에도, 현장 조사를 통한 자료수집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문화재관리국에서 발행한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第二十四冊, 二十五冊-産俗篇 上·下卷 (1993-1994)과 최래옥 교수가 15여 년에 걸쳐 수집 채록한 『한국 민간속신어 사전』 (1995)은 전국에 걸쳐 현재 통용되는 민간속신어의 자료를 현지조사와 설문지를 통해 집대성한 자료집으로, 앞으로 민간속신어에 대한 연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60년대에 김성배는 민간속신어를 문학적인 가치에 주목하여

4) 본 연구의 목적의 논리적 전개를 위해 2장에서 그 내용을 정리할 것이다.

금기어와 길조어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그후 문효근, 심재기, 김종택, 김영돈, 김형주, 최근무, 김열규, 김태곤, 김선풍 등 여러 학자에 의해 자료수집과 함께 유형화를 통한 구조분석에 중점을 두어 민간속신어의 문학적 접근을 위한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

또한, 김열규(1982), 주옥(1982), 윤영미(1982), 곽진석(1982), 서종문(1987)에서는 민간속신어의 구조분석과 함께 ‘속신어와 신화’, ‘속신어와 삼국유사에 나타난 상대시가’, ‘속신어와 현대소설과의 연관성’을 통해 민간속신어가 이야기를 짜는 근본구조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논의는 민간속신어가 갖는 문학의 기능을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성과로 남는다.

민간속신어의 종합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속신어를 문학 범주에 포함시키는 이론 정립이 필요함을 느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최래옥에 의해서다. 최래옥(1995, 외 다수)은 속신어의 내용을 금기어에 한정하지 않고 길조어, Jinks, Sign, Taboo 등을 포괄한 개념으로 설정하였는데 이것은 민간속신어의 범주를 민간에서의 신앙성격으로 확대한 점과 문장형태로 된 것에 주목함으로 문학적인 접근의 활로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최래옥 교수의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적인 가치로 진일보한 것은 정일형(1999)의 연구이다. 민간속신어가 교육적인 윤리성과 실용적 효용성, 주술적 심리성의 가치가 있음을 밝힘으로 교육담으로서의 성격 규명을 명확히 하였다. 점에서 국어과 교육의 제재로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다.

## II. 민간속신어의 문학적 성격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말에는 반드시 의미가 존재한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구비 전승되는 구비문학 역시 통시적 관점에서 볼 때 그 의미가 새롭게 재인식되는 과정을 통해 발전해 왔다. 우리가 과학시대에 흔히

민간속신어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민간속신어가 활발하게 통용되던 시대에는 분명히 타당한 이유가 존재했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민간속신어가 일부 통용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매우 설득력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출근길에 장의차를 보면+

(아침에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 하루를 진지하고 성실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재수가 좋다.

길을 건다가 똥을 밟으면+

(길을 걸을 때 항상 잘 살피면서 걷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재수가 없다.

이렇게, 민간속신어는 구전되는 당시의 현재화된 의미를 바탕으로 매우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전승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해석은 자의적이지만 상식적인 범위를 넘지는 않는다. 때로는 지역이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 재해석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민간속신어에서 제공되는 화소(話素)가 고정적인 해석의 차원이 아닌 개방적 의미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속신어는 구비단문으로 그 표현구조는 매우 단순하다. (Elli Kongas Maranda & Pierre Maranda, 1971: 81)

민간속신어(Folk Belief) = 조건절 ± 결과절

곧, 민간속신어의 조건절은 ‘~하면 또는 ~하게 되면’의 전형성을 가진 형태로 나타나며 결과절은 좋은 결과(+)나 나쁜 결과(-)로 나타난다.

민간속신어가 이렇게 간단한 구조를 갖는 것은 구비 전승을 위한 효율적인 장치이자 시대와 상황에 따라 타당한 이유를 개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문학 장치이기 때문이다(정일형, 1999, 137-138). 물론 타당한 이유는 조건절과 결과절에 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상치되는 해석은 나오지는 않는다.

조건절 +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해석) + 결과절

예1) 문지방에 걸터앉으면 + (왜냐하면, ~ 이기 때문이다.) + 그 집에  
불길한 일이 생긴다.

예1)에 제시된 민간속신어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화자가 '문지방에 걸터앉으면 그 집에 불길한 일이 생긴다.'라며 특정한 청자(聽者)에게 발화했다고 하자. 청자(聽者)는 화자의 단도직입적인 이러한 말을 듣고는 '왜' 라는 물음을 갖게 된다. 물론 청자는 이러한 말을 듣는 상황에 따라 '왜'라는 물음을 감추기도 하고 때론 표현하기도 한다.

'왜'라는 물음이 감추어졌을 경우에는 이미 조건에 합당한 결과를 알고 있는 화자에 대한 권위가 인정될 때이다. 그러나, 화자의 권위로 인해 그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자는 '조건절'과 이에 대한 '결과절'만을 가지고 타당한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게 된다. 물론 이때에도 사회적인 차원을 고려하여 해석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의미 부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면에 '왜'라는 물음을 통해 화자에게 민간속신어의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요구는 개인적인 차원의 해석이 아닌 사회적인 차원의 해석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때, 화자(話者)는 사회적인 차원을 고려해서 조건절과 결과절에 합당한 설득의 말하기를 해야 한다. 민간속신어를 교육 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해석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속신어에 감추어진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해석의 범위'는 화자(話者)와 청자(聽者)의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동원시키는 문학의 모티브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민간속신어는 독창적이면서 보편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민간속신어가 현대에 들어오면서 더 이상 구비전승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단지 과학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민간속신어가 문명·과학사회에서는 더 이상 생성되지 않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현대에도 계속 생겨나고 있으며 사회적인 영향력이 아직도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5)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민간속신어가 구비전승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현대인이 현대감각에 맞는 사회적인 차원의 해석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속신어가 사전적 의미에서보다 민족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에서 해석해야 한다. 그렇다면 민간속신어가 현대에 와서 사회적인 차원의 해석을 도외시하게 된 것은 왜 그런가를 살펴보자.

〈자료 1〉

구렁이가 집안에 들어오면 잘 산다.

-제보자는 이렇게 말한다.

“한 여자가 친정에서 다 커 가지고 시집을 갔어. 잘 살았는데, 이래 살더니 친정에 왔는데 부엌에 보면 문지방이 있잖아? 구렁이가 와서 문지방에다가 파리를 틀고 있네. 이래 가꼬 있더라. ‘니가 왔다. 날 찾아왔구나. 들어오나라. 꼬숙이 들어가서 사람 눈 안보이게 터를 잘 잡아라.’ 그래서 들어갔는데 잘 살드래. 그래서 태평하게 있었는데 차츰차츰 그 집이 잘되드래.”- (최래옥 외, 2002: 258)

〈자료1〉은 민간속신어가 구비전승 될 수 있는 조건을 볼 수 있는 단적인 예이다. 제보자(=화자)는 【구렁이가 집안에 들어오면 잘산다.】라는 민간속신어를 제시하고 누구에게나 공감할 만한 타당한 이유를 한편의 이야기로 표현하고 있다. 제보자는 본인이 구술하는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허구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력이 있는 것은 민간속신어가 문학적 속성을 지녔으며 그 사회 구성원에게는 보편적 진리 범주에 해당되는 것을 의미한다.

5) 요즘에도 흔히 다음과 같은 민간속신어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몇 가지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월요일에 극장가는 사람은 재수가 없다.

화장실에서 한말은 널리 퍼진다.

이름을 함부로 고치면 직장을 옮긴다.

출근길에 장의차를 보면 재수가 좋다.

이렇게 민간속신어는 민족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믿음이 바탕이 되어서 한편의 개성적인 문학으로 재창조될 때 비로소 문학으로서 가치가 있으며 전승될 수 있는 것이다.

〈자료 2〉

꿈에 송장이나 소금을 보면 재수가 없다.

- 제보자는 말한다.

“송장 같은 거 보면 왜 재수가 좋데는데 몰라요. 근데 그날 재수가 있더라 고. 돈이 생긴다던가 무슨 기쁜 일이 생긴다던가.”(최래옥 외, 2002: 258)

그러나, 현재 채록되어 전하는 대부분의 민간속신어는 〈자료 2〉에서 보여주듯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조건과 결과절에 그 내용에 대한 타당한 근거나 이야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민간속신어가 ‘이유를 달지 않고 그냥 그렇게 믿는다.’라는 무조건으로 믿는 신앙적인 말로 본다면 민간속신어는 문학의 범주로 인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자료2)에도 자료1)에서처럼 구연하는 사람에 의해 타당한 이유가 제시되었을 것으로 확신한다. 다만 자료2)의 발화자가 민간속신어가 조건절과 결과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해석의 범위’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이다.

민간속신어가 자유로운 상상력을 동원하여 의미를 불어넣을 수 있는 열린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은 국어과 교육에서 현대의 감각에 맞는 새로운 언어사용과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데 적합할 수 있는 교육 자료임을 알 수 있다.

### Ⅲ. 국어과 교육에서 민간속신어의 활용 가치

#### 1. 국어과 교육목표와 민간속신어

제 7차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의 마지막 학

년인 10학년(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목표를 기준으로 국어과 교육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언어 활동과 언어와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언어 활동의 맥락과 목적과 대상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가) 언어 활동과 언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이를 다양한 국어사용 상황에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나)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 사용의 원리와 작용 양상을 익혀, 다양한 유형의 국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상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다) 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있어 언어 현상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여,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교육부, 2000)

국민 공통 기본 교육으로서의 국어과 교육목표는 전문과 세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은 포괄적인 진술문이며 전문에 이어진 세 개의 항목은 전문에 대한 영역별 세부 내용으로 되어있다. 영역별 세부내용은 국어과 교육이 학습자에게 객관적인 지식체계의 습득을 통한 내용교과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창조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방법교과로서의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명문화한 것이다. (이삼형 외, 2002: 24-27) 이는 국어과 교육은 기능적 문식성을 기르는 궁극적인 목표가 국어 문화의 계승과 창조에 공헌하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7차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년별 내용을 발표한 구체화시킨 연구(박영목 외, 2001: 235-240)에서도 국어 문화의 계승과 창조는 국어과의 목표달성에 매우 필요한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 9학년 >

• 쓰기가 사회·문화적 과정임을 안다.

기분) 사회·문화적 배경이 글 속에 담긴 정보나 사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토의한다.

심화) 글쓴이, 독자, 글, 사회, 문화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이를 바탕으로 설명하는 글을 쓴다.

〈10학년〉

· 상황에 따라 내용을 적절하게 생성하여 쓴다.

기본) 독자, 주제, 목적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자료에서 필요한 내용을 선정하여 글을 쓴다.

심화) 자신만의 독창적인 내용 생성 원리를 적어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용을 생성하여 글을 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어과 교육에 민간속신어를 활용한다는 것은 학습자가 현실에 적합한 민간속신어를 만들어낸대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민간속신어가 자유로운 상상력을 동원하여 의미를 붙여넣을 수 있는 열린 구조임을 인지하여 선인들의 지혜를 추론하고 찾아내어서 해석해보는 활동뿐 아니라 국어교육활동에 적절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2. 민간속신어 활용의 국어학습 효과

국어과 교육에서 민간속신어를 학습제재로 사용할 때 얻을 수 있는 국어학습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의 사고력을 기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국어과 교육에서 민간속신어를 통해 구현할 수 있는 사고력 신장은 민간속신어가 문학적인 놀이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민간속신어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차원이 아닌 사회·문화를 바탕으로 한 언어 문화측면의 해석의 차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민간속신어는 현실의 사태를 초월적인 힘에 의지해서 막아보려는 언어의 순발력이 담겨져 있다. 여기에는 다채롭게 펼쳐지는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비판하면서 바른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해 주

는 통찰력도 포함되어 있다.

- ㉠ 꿈에 가지를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  
 꿈에 고추를 보면 아들을 낳는다  
 꿈에 굵은 뱀을 보면 아들을 낳는다  
 꿈에 숲속에 나무가 나면 귀한 아들이 생긴다  
 태몽에 용이나 뱀을 보면 아들을 낳는다  
 꿈에 사람이 오얏을 보면 득남한다  
 꿈에 금붕어를 보면 아들을 낳는다
- ㉡ 태몽에 복숭아를 보면 딸을 낳는다  
 감을 쥘는 꿈을 꾸면 딸을 낳는다  
 꿈에 조개를 잡으면 딸을 낳는다  
 꿈에 호박을 따면 딸을 낳는다

제시된 ㉠, ㉡에 제시된 민간속신어는 태몽속신어 중에서 꿈의 내용으로 아기의 성별을 미리 예견하는 속신어로 성별분별속신어(정일형, 1999: 153-154)라 한다. 성별분별속신어의 표현양식은 대개 다음과 같다.

꿈에 + ( )을 보면(먹으면, 사용하면, 잡으면) + 아들(딸)을 낳는다

여기에서 조건요소와 결과절에서 추출된 요소는 다음과 같다.

조건요소	결과요소
가지, 고추, 굵은 뱀(구렁이), 나무	아들
용, 오얏, 금붕어	
복숭아, 감, 조개, 호박	딸

조건요소인 가지, 고추, 굵은 뱀(구렁이), 나무, 용, 오얏, 금붕어 등은 남성의 성기를, 복숭아, 감, 조개, 호박 등은 여성의 성기와 자궁의 모양을 연상시키는 자연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의 민간속신어만 가지고는 그 타당한 이유를 짐작하기 어려워 미신적인 요소로 취급할 수밖에 없지만 공통된 내용의 표현양식을 통해 조건요소들을 모아 놓을 경우 민간속신어의 의도와 함께 보편타당한 해석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학습자는 보편타당한 해석을 찾기 위해 여러 경로나 방법을 통해 사고력을 발휘하는 과정을 거친다.

또한 다음 아래 ㉔과 같은 민간속신어를 제시했을 때 우리는 사고의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해석을 내릴 수도 있다.

㉔ 가게나 방안에서 우산을 펴면 나쁘다

1. 가게는 물건을 파는 집인데, 우산을 펴는 것은 천장이 샌다는 말이다. 물건을 파는 집은 물건이 젖고 방안에서 우산을 펼 정도라면 사람이 젖을 수 있을 만큼 집안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게에서 빗질은 가게를 더럽히는 행위이다. 이 또한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가게는 물건을 파는 곳이니만큼 보수가 잘되고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천장은 집에서 위에 해당한다. 곧 하늘로 통하는 문인 것이다. 조상들은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산을 펴면 하늘의 복을 막는 행위인 것이다.

3. 그리고 가게는 집안이라 우산을 펼 필요가 없는데 펴면 비정상적이라 그 가게에 해가된다.

이러한 다양한 해석은 ‘독자(또는 청자)중심의 질적 읽기(또는 듣기)’ 또는 ‘발산적 사고 기능’의 신장을 위한 읽기(또는 듣기)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로는, 국어과 교육에서 민간속신어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활용하면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의 창의적 국어사용 능력 향상

을 국어 교과 교육의 최상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1997: 9)

㉔ 임신부가 산에서 물을 먹으면 뱀을 낳는다

㉔은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온 말로 해석할 경우 이를 바탕으로 다음의 짧은 이야기로 꾸미는 창의적 활동을 할 수 있다.

옛날 옛날에 한 나물캐던 처녀가 산길을 내려오다가 개울가에서 물을먹었다. 그 후, 한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서 배가 불러왔다. 마을 사람들은 숫처녀가 아이를 가졌다고 마을 사람들이 수근덕 거렸다. 처녀의 부모들은 그럴 리가 없다며 아마도 기근으로 인한 병인 것으로 여기며 항변하였다. 그러나 어김없이 열 달째가 되었을 때 배가 이파서뒹글게 되었는데 이때 출산의 고통을 겪게 되었다. 그런데 배에서 나온 것은 사람이 아닌 뱀이었다. 알고 보니 이 뱀은 처녀가 개울가에서물을 먹을 때 함께 먹은 뱀 알이었다고 한다. 그 뱀은 처녀의 가족들을 다 죽여 버리고 마을사람에게도 큰 위협의 존재가 되었다.

국어과 교육에서 민간속신어의 활용을 통한 창의성은 언어사회에서 새로운 어휘를 탄생시킬 때, 새롭게 창조되는 것보다는 합성어나 또는 기존의 어휘에 뜻을 확장하거나 변이시켜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에서 설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인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사고의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편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은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해석하여 무궁무진하게 이야기의 내용을 꾸밀 수 있는 것이다.

#### IV. 결론

본고(本考)는 구비문학 중 많은 자료가 수집 정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학적 재창조의 모색에 등한하였던 구비단문형식의 교육담(教育談)인 민간속신어에 주목하고 이를 국어과 교육의 제재로 설정하였다. 민간속신

어는 구비문학의 속성을 갖고 있는 교육담으로 국어과 교육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국어과 교과 목표에 적합한 형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인의 연구물인 「산속속신어 연구」에서 이미 밝힌 민간속신어의 성격과 개방적 구조를 국어과 교육에 접목시켜 수업현장에서 국어과 교육 목표에 적합한 학습자료로 활용을 시도했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

민간속신어는 현재 선학자에 의해 채록된 것만 해도 약 2만 여개로 추산하고 있다.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된 구비단문인 민간속신어가 합리성과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중요시하는 현대 사회에서도 전승될 수 있었던 것은 선인들의 삶과 경험에서 비롯된 구체적인 교훈이 문학적인 장치를 통해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독자나 청자에게 다양한 해석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변형이 가능할뿐더러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생성할 수 있는 말놀이인 것이다.

언어문화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구성원에 의해 활용되어질 때 창조적 발전이 있다. 국어과 교육에서 민간속신어를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선조들의 언어문화유산을 계승할 뿐 아니라 한국문학을 이해하고 창조하며 말놀이를 통해 사고력 신장과 창조적 학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6) \* 본 논문은 2005. 6. 27. 투고되었으며, 2005. 7. 13. 심사가 시작되어 2005. 7. 26.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곽진석(1982), “한국속신의 구조와 그 소설적 기능-이청준의 「석화촌」을 대상으로-”, 『서강어문』 2집.
- 교육부(2000),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대한교과서.
- 김성룡(1990. 2), “한국인의 인생관, 종교관, 우주관이 어우러진 금기풍속”, 『한국인』.
- 김성배(1962, 1963), “한국의 금기어고”, 『국어국문학』 25, 26호.
- \_\_\_\_\_(1973), “금기 속신의 현대적 고찰”, 『김시엽박사회갑논총』.
- \_\_\_\_\_(1975), “『한국의 금기어 길조어』, 정음사.
- \_\_\_\_\_(1980), 『한국의 민속』, 집문당.
- 김열규(1982), “속신과 신화의 서정주론”, 『서강어문』 2집.
- \_\_\_\_\_(1983), “민중의 문들에 관한 試論”, 『한국인의 생활의식과 민중예술』 대동문화연구총서 II,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_\_\_\_\_(1994), 『한국문학사』, 탐구당.
- 김영돈 외(1972), “금기담”, 『한국학보』 제4집,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회.
- 김일환(1992), “속담과 금기어를 통해서 본 한국인의 보건의생관”, 『대구교대논문집』.
- 김종택(1973), “속언의 성격과 유형-속언의 유개념 설정을 위하여-”, 『청계 김시엽박사송수기념논총』.
- \_\_\_\_\_(1983), “속언을 통해 본 한국인의 의미구조”, 『훈민 최정여박사송수기념 민속어문논총』 계명대출판부.
- 김태곤(1988. 5), “각종 금기를 통해 본 한국인의 심층심리”, 『광장』.
- 김형주(1979. 2), “부안지방의 토속어”, 『전라문화연구』 창간호, 전북향토문화연구회.
- 문효근(1962, 1963), “한국의 금기어”, 『인문과학』 8, 9집,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 박영목, 한철우, 윤희원 공저(2001), 『국어과 교수 학습론』, 주)교학사.
- 서종문(1987), “금기 민속의 문학적 형상화”, 『인문과학』, 경북대학교.
- 심재기(1967), “금기어문장에 관한 고찰”, 『우리문화』, 우리문화연구회, 31회.
- \_\_\_\_\_(1970), “금기 및 금기담의 의미론적 고찰”, 『인문사회과학논문집』 2호, 서울대학교양과정부.
- \_\_\_\_\_(1978), “언어와 금기. 한국전래 금기 속담을 중심으로”, 『금기 <특집>』, 『북악』 29집, 국민대.
- 윤영미(1982), “〈학마을 사람들〉에 나타난 속신의 세계”, 『서강어문』 2집.
- 이은상(1927a), “이언의 의의 및 그 형성에 관하여”, 동광10호.
- \_\_\_\_\_(1927b), “특수이언과 공통이언”, 동광13호.
- \_\_\_\_\_(1929), “조선리언의 전화에 대한 일고”, 신생13호.
- 이삼형외(2002), 『국어교육학』, 소명출판.

- 장덕순외(1988), 『구비문학개론』, 일조각.
- 장장식(1985), “금기의 갈등구조”, 『한국민속학』 18집.
- 정일형(1999), “산속속신어 연구”, 『비교민속학』, 비교민속학회.
- 조동일(1980), 구비문학의 세계, 새문사.
- 주 옥(1982), “해성가와 속신”, 『서강어문』 2집.
- 최근무(1979.2), “전북지방의 Jinks의 유형적 연구”, 『전라문화연구』 창간호, 전북향토문화연구소.
- 최길성(1989), 『한국민간신앙의 연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 최래옥(1983), “민간속신어의 성격연구”, 『호민 최정여박사송수기념 민속어문논총』, 계명대출판부.
- \_\_\_\_\_(1986), “한국민간속신어의 연구”, 『비교민속학』 제2집, 비교민속학회.
- \_\_\_\_\_(1995), 『한국 민간속신어 사전』 집문당.
- \_\_\_\_\_(1997), “내세속신어 연구”, 『구비문학연구』 제3집, 한국구비문학회.
- \_\_\_\_\_(1997), “손과 팔과 어깨에 관한 민간속신어 연구”, 『비교민속학』 제13집, 비교민속학회.
- \_\_\_\_\_(2002), 『성동구의 구비단문』, 서울성동문화원.
- 한국교육개발원(1997),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
- 韓國文化象徵事典編纂委員會編(2000), 『韓國文化상징사전』, 동아출판사.
- Alan Dundes(1975), *The Structure of Superstition, Analytic Essays IN Folklore*, Mouton.
- Elli Kongas Maranda & Pierre Maranda(1971), *Structural Models in Folklore and Transformational Essays*, Mouton, paris.

〈초록〉

## 국어과 교육에서 민간속신어 활용 방안 모색

정일형

본고는 구비문학 중 많은 자료가 수집 정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학적 재창조의 모색에 등한하였던 구비단문형식의 교육담(教育談)인 민간속신어가 국어과 교육에서 어떠한 활용가치가 있는지를 규명하고 그 가치를 학교 수업을 통해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그동안 민간속신어가 국어과 교육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없었던 것은 민간속신어를 구비문학의 범위 영역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본 소고에서는 이러한 국문학의 통념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였고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했다. 그동안 민간속신어는 '이유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일방적인 지령적 언어'로 잘못 인식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본인은 민간속신어의 표현방식이 구비단문이지만 실제 쓰임에 있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개방적 구조로 되어 있음을 밝혀 국어과 교육에서 민간속신어가 구비문학으로서 활용가치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또한 민간속신어가 국어과 교육에서 국어과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적합한 자료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논거와 아울러 국어과 교육현장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소고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민간속신어는 고도의 상징성과 함축성이 있는 짧은 문학형태로 내적 개방구조를 가지고 있어 현대 감각에 맞는 창조적이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둘째는, 민간속신어가 국어과 교육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데 적합한 우리 민족의 언어문화유산으로, 현대 감각에 맞게 재창조할 수 있는 적합한 국어과 자료이다.

셋째는, 국어과 교육에서 민간속신어 제재를 활용을 통해 국어사용에 있어 사고력신장과 창의적인 표현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핵심어】 국어과 교육, 구비문학, 민간속신어, 내적 개방구조, 언어문화유산

〈Abstract〉

**A Research on How to Use the Sentences Which Folks Believe  
in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Jeong, Il-hyung

Though a large amount of data in oral literature are collected and arranged, the which folks believe, or educational discourse of oral short words or sentences have been disregarded the research on literary re-creatio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losely the value of the sentences of folks believe in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search for how to use it in class.

As the sentences of folks believe are excluded from the range of oral literature, they have not been used as educational sources in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 common idea of this language education is wrong and explains the reasons in detail.

For a while, sentences which folks believe have been misconceived as directive languages which people have to admit without reasoning. I would like to look into the real uses of them because they have many possible open interpretation, although the expression of them is a story which was handed down orally, and I also would like to look into the value of the use of them believe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addition, knowing that sentences which folks believe are suitable materials for achieving the goal of curriculum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I would like to present the evidence for this and the practical use of them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field.

This study can be concluded with these three points.

First, the words or sentences which folks believe are a sort of short, symbolical and implicative literature style as well as creative and diverse style which can be modern and have open-structure.

Secondly, it is suitable language material that can do re-creation according to morden sence by language cultural heritage of suitable our nation to do it so that

sentences which folk believe may achieve purpose of language course education. Thirdly, can contribute sentences which folks believe subject in thinking faculty extension and creative expression ability improvement in language use through practical use in language course education.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oral literature, Sentences Which Folks Believe. open-structure.